李建昌과 그 一門의 文學

閔 丙 秀*

序 言

寧齋 李建昌이 在世한 19세기 후반은 이른바 開化期라고 하는 激動期였다. 文明開化라고 하는 새로운 時代意志가 一方的으로 모든 것을 威壓的으로 支配한 時期였다. 文明開化라고 하는 變化하는 外部的인 側面만 가지고 이 時期의 時代的인 性格을 規定하려 든 것은 그 出發에서부터 잘못 된 것이다. 持續的인 自己維持를 위한 部內의 主體的인 意志가 완전히 날치기를 當한 것이다. 文學의 世界에서도 例外가 아니었다. 西歐化한 日製文學이 그 商標만 바꾸어 우리의 新文學으로 脚光을 받은 時代다. 甲午政變을 한갖 開化군의 불작난으로 본 寧齋 李建昌은 滄江·梅泉·古懷堂·修堂 등과 함께 이 時代 文學硏究에 있어 重要한 一席을 차지하는 一世의 眞才이다. 물론 한 時代의 文學史가 곧 個個 文學의 單純한 總和로써만 可能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의 文學이 그 透徹한 時代意志가 이 時期文學의 높은 山脈으로 바라보아질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近世에 보기드문 寧齋一門의 硏究는 우리나라 傳統時代의 文學과 思想 그리고 歷史와 精神을 함께 理解하는데 그 重要한 課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本稿의 作業이 다만 그 실마리를 꺼집어 내는데 一助가 된다면 萬의 一이라도 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서울大學校 敎養課程部 專任講師(國文學)

Ⅰ. 寧齋 一門과 黨論

寧齋는 1852年(哲宗 3年) 5月 26日 江華島 沙谷에서 태어났다. 이곳 江華島는 高麗 高宗 때에 있었던 蒙古兵의 侵寇以後 江都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거니와, 이는 大陸民族의 威壓的인 侵略이 있을 때마다 이 江華島가 避難地 首都의 구실을 하게 됨으로써 이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 寧齋一門이 이곳에 世居하게 된 것도 그 事情에 있어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을 避難地로 擇한 點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前者는 兵火의 禍를 避하기 위하여 이곳을 臨時 首都로 擇한 것이고 後者의 경우는 當時 날로 그 樣相이 極烈해 가던 黨論의 渦中에서 逸脫 隱居하기 위하여 이곳 섬속으로 옮겨 살게 된 것이다. 寧齋 一門이 이 江華섬에 緣故를 가지게 된 것은 그의 五代祖인 匡明(1701~1778)이 霞谷 鄭齊斗의 門下에 出入하게 됨으로써 霞谷이 晩年에 退居하고 있던 江華와 因緣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곧 後日 黨禍로 落拓하게 된 寧齋 一門의 隱身處를 미리 마련한 契機가 된 셈이다. 처음 匡明이 이곳으로 옮겨 올 때만 해도 그 門戶가 盛하여 一門의 擧皆가 서울에서 살았으며 黨論의 禍가 직접 그들 一門에까지 미치지는 않았던 때였다. 그러나 그의 養嗣子 椒園 忠翊이 쓴 다음과 같은 글에서 보면[1]

先考往來多從文康公 學于江華之鎭江山下 先考於門戶盛時 已不樂京居 卜宅於摩尼山 (中略) 跡不入城府三十年 至乙亥坐律…(文康公은 霞谷 鄭齊斗)

이때 이미 匡明은 서울 生活에 염증을 느끼고 이곳 江華島 摩尼山下에 卜居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글만 가지고는 匡明이 언제 江華島에 移居하게 된 것인지 그 正確한 時期는 알 수가 없지만, 霞谷이

1) 李忠翊 : 椒園遺稿 先考妣合葬誌

江華에 退居하게 된 것이 그의 61歲되는 해[2] 즉 肅宗 36年(1710)이고 또 匡明이 그 門戶가 盛할 때 이미 江華에다 집을 마련하여 살았다는 사실로 보아 적어도 辛壬獄事때 老論四大臣을 攻斥한 主動人物의 한 사람인 眞儒(匡明의 伯父, 眞儒가 그의 伯父인 晩成앞으로 入系함으로써 堂叔이 됨)등 少論一派가 禍를 當하게 된 景宗 4年(英祖即位年, 1724) 以前에 이곳 江華에 옮겨 산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跡不入城府三十年 至乙亥坐律…"이 示唆하는 바에 따르면 "乙亥"는 곧 羅州壁書事件으로 匡明 自身은 勿論 그 從兄弟들이 모두 極邊으로 竄謫된 英祖31年이고 이에 앞서 30年 동안 城府에 出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英祖31年보다 30年前인 英祖 1年 또는 그 以前부터 杜門不出 하고 摩尼山下에서 蟄居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一聯의 事實을 綜合해 보면 匡明이 江華에 移居하게 된 것은 肅宗末 景宗初라 하겠으며, 이로부터 머지않아 있었던 少論의 失勢以後 30年 동안을 隱身하고 살다가 마침내 英祖 31年에 永遠히 돌아오지 못한 귀양의 길을 떠난 것이다. 이로 보면 비록 그가 門戶가 盛할 때 江華로 옮겨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伯父 眞儒 등이 聯名으로 老論四大臣을 攻斥하여 이들에게 죽음의 약사발을 내리게 한 辛壬獄事의 非情한 殺戮戰을 보고 이미 세상에 뜻을 잃고 그 隱身處를 求하여 섬 속으로 찾아든 것이라 보아진다.

寧齋一門의 硏究에 있어 注目해야 할 事實은 바로 이 黨論과 家學이다. 黨論으로 말미암아 一門이 支配階層의 權座에서 疎外 脫落되어 窮士居鄕의 辛苦를 勘耐해야만 하였고 累世에 걸쳐 反對勢力과의 사이에 嫌郤이 벌어져 下僚에 沈淪하게 되었으며 일찍이 淸要職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定宗 別子 德泉君 厚生을 그 鼻祖로 삼는 이들 王孫은 그 六世에 이르러 石門 景稷(官 戶曹判書)과 白軒 景奭(官 領議政)兄弟가 우뚝 솟아 以後 數代에 걸쳐 이른바 六眞 八匡에 이르는 동안 家世 貴顯하였다.

2) 鄭齊斗 : 霞谷集 年譜參照

六眞 八匡이라 함은 石門과 白軒 兄弟의 曾孫 및 玄孫 中에서 특히 眞淳·眞洙·眞儒·眞儉·眞伋(以上 石門曾孫)과 眞璧(白軒曾孫) 등 六人과 匡世·匡輔·匡呂·匡師·匡賛(以上 石門玄孫) 및 匡德·匡誼·匡度(以上 白軒玄孫) 등 八人을 指稱하는 것으로 이들 중 匡度를 除外한 13人이 모두 大科에 올랐으며 擧皆가 詩文·書畫 또는 淸白高行으로 世人의 推重을 받았다. 이밖에도 恒齋 匡臣은 文行으로 세상에 알려진 바 되었지만 前記 八匡 속에는 들지 못했다. (眞伋이 寧齋의 本 生六代祖임)

이와 같이 當代의 閥閱로 알려진 이 一門이 破家의 危機에 直面하게 된 것은 이미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辛壬獄事에서 그 禍根이 發端된 것이다. 寧齋의 7代祖인 戶曹參判 大成의 5子中 眞儒·眞儉·眞伋 三兄弟가 모두 文科에 올라 可謂 盛時를 이루었으나 伯兄 眞儒(伯父晩成 앞으로 入系)가 老論四大臣을 攻斥한 辛丑疏에 疏下 六人의 一人으로 加擔함으로써 黨禍의 慘劇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英祖가 即位하자 政局이 바뀌어 眞儒는 使行에서 돌아오는 途中 渡江을 하자마자 配所로 떠나야만 하였고 丁未換局으로 宥恕의 길이 트이는 듯하였으나 그 이듬해에 일어난 李麟佐의 亂에 少論一派가 連累되어 壬寅疏와 無關한 辛丑疏의 聯名 諸人 中 살아남은 眞儒 등이 뒤에 모두 杖下의 寃鬼가 된 것이다. 이때부터 家勢는 기울기 始作하였으며 決定的으로 一門이 破家의 大棘을 겪게 된 것은 그뒤 英祖31年에 있었던 羅州壁書事件이었다. 이때의 情況은 圓嶠 匡師가 쓴 無妄軒先生墓誌銘에 잘 나타나 있다.[3]

(前略)家事大棘 兩弟及群從弟 並投南北塞(下略) (無忘軒은 匡師의 兄 匡泰)

이로써 이미 죽은 眞儒에게는 追律이 加해져 그 子孫은 海島로 옮겨지고[4] 諸姪이 모두 南北 極邊으로 竄謫되어 돌아오지 못했다. 이때 寧

3) 李匡師 : 圓嶠集 無妄軒先生墓誌銘
4) 李建芳 : 蘭谷存稿 家傳

齋의 高祖인 椒園은 先考(匡明)와 本生先考(匡顯) 兩考가 모두 南北塞로 竄謫되어 (匡明은 甲山, 匡顯은 機張)謫舍의 寃魂이 된 苦艱을 겪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椒園은 거듭되는 家難에서 헤어나지 못해 家眷을 이끌고 流轉하기 시작, 或은 畿峽間으로 或은 舊居地인 王城의 西江으로 轉轉하였으나 그가 安住할 樂土를 發見하지 못하고 다시 江華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같은 當時의 어려운 事情에 대하여 그의 아들 岱淵 勉伯은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5]

(前略) 椒園君免喪 而益無以爲活 盡室轉徙畿峽間爲童子師 權儒人爲人縫紅以享先 而餬兒女 (中略) 晩移王城之西江 親舊幾盡凋謝過從多新知 椒園君不樂也 蓋去椒園二十年而反園(下略)

그리고 椒園 自身이 쓴 龜搓說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6] 그가 얼마나 流轉하였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余平生多不在家 炎風朔雪 身備經之 所履行蓋累萬里 居又數遷 丁未春 自沁島 舟至幢梁 在幢梁五年三四遷 辛亥秋 至松岳之陽 復七年 卜居于長湍之都納山下 其間五移屋…

失勢한 兩班士類가 甘受하지 않을 수 없었던 苦境 그대로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였던지 岱淵이 쓴 五言長詩「自西江歸沙谷舊居釣魚仙浦」에 보면

(前略) 我心不在魚 但恨負清水 更思米薪費 盡室島鄕徙 (下略)

물가운데 낚시를 드리우고도 마음은 쌀과 땔나무에 있었다니 可謂 赤貧如洗의 貧窮 그것이었던 모양이다. 이는 執權勢力의 外廓地帶에 閑居하면서 形式的인 洗練의 美를 가지고 그들의 價値尺度로 삼고 있던 當

5) 李勉伯：岱淵遺稿 先考妣合葬誌
6) 李忠翊：椒園遺稿 坤

時 近畿地方 沒落兩班들의 典型라도 一面 통하는 바가 있다. 生産手段의 擴大 없이 支配階層의 人口만 增加해 가던 當時의 社會 實情에서 보면, 단순한 朋黨에서 出發한 黨論이 그 末弊에 이르러 무서운 殺戮戰으로 變質해가는 過程에서 量産된 沒落兩班의 自然的인 增加 또한 必然的인 結果라고 할 것이다.

黨論의 禍가 猛獸나 洪水의 禍보다도 무섭다고 한 것은 黨禍의 餘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雄辯으로 說明해 준 것이 기도 하겠거니와 이러한 實相은 寧齋 一門의 경우에서 더욱 切感하게 된다. 辛壬獄事에서 비롯하여 羅州壁書事件에 이르는 一聯의 黨禍로 그 一門이 大棘을 겪게 되었다는 것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以後 170餘年에 이르도록 伸寃마저 되지 못하다가 나라가 亡하는 隆熙 2年에 가서야 그것도 亡國內閣에서 그 寃枉을 伸雪하게 되었다. 그 一門이 沈滯한 것은 물론이요 反對勢力과의 嫌郤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蘭谷 建芳은 그의 從六世祖北谷公家傳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7]

乙亥又加追律 子孫徙海島 群從皆坐謫 塵瘴地且錮 其世永不原宥 經一百七十有餘年 而爲隆熙二年戊申 時日本脅約 置統監 監視國政 內閣諸臣欲以伸雪寃枉爲名 於是被錮諸家 皆得解 而公亦除罪名 還授其職牒焉(下略)

支配階層의 勢力圈에서 離脫된 兩班士類中에는 그들의 故土로 돌아가 農土 위에서 安住하면서 白頭 常民으로 轉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朝鮮王朝 後期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地方에서 勢力을 扶植하여 有力한 地方 土豪로 君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寧齋 一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어려운 家勢를 이끌고 나가면서도 宦路에 뜻을 잃고 오로지 "固窮" 그것을 家憲으로 지켜왔으며 堂中에는 讀書하는 祖子孫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僖淵이 쓴 다음 글에서만 보아도 이러한 그들 家

7) 李建芳 : 前揭書

訓을 窺知하는데는 不足함이 없을 것 같다.[8]

椒園君居海中 貧且老 人多憫其窮者 而君自謂非窮也 嘗曰吾室中有讀書祖子孫三世 尙復溫飽之望耶 故家常蕭然 而人見其自得色 至乙亥 是遠壯元及第 椒園君聞報 瞿然 曰吾意理或有是 而未之敢願也

孫子 是遠이 大科에 及第한 것을 보고도 반가워할 줄 모르는 椒園이었다. 椒園은 一生을 布衣로 마쳤지만 三敎에 博通하고 高識至行으로 世人의 推重을 받았다. 그의 아들 岱淵도 家學을 繼承하여 宏博長德으로 그 이름이 알려졌으나 그의 母夫人 權氏의 가르침에 따라 仕宦에 뜻을 버리고 進士에서 自足하였다. 沙磯 是遠이 魁科에 뽑혀 비로소 出仕를 한 것이다. 그러나 晩年에 벼슬이 吏曹判書에까지 오르긴 하였지만, 그도 처음에는 仕宦한지 10餘年에 이르도록 顯職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純祖에서부터 高宗에 이르기까지 4代 歷事를 하였지만 70平生에 그가 自願하여 얻은 벼슬은 出仕한지 10餘年만에 乞縣하여 얻은 康翎縣뿐이었다. 老父母의 奉養을 위하여 鄕里에서 가까운 康翎縣을 擇한 것이다. 그러나 任地에 나아가기도 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끝내 그 臨終마저 지켜보지 못했다. 累代에 걸쳐 江華에서 살았으므로 純元王后와 江華도령 哲宗의 知遇를 입어 大用의 길이 트이기는 하였으나 선뜻 나서지 못한 沙磯였다. 20餘次에 걸친 辭疏를 통하여, 工曹參判 開城留守 刑曹判書 咸鏡監司 吏曹判書 등의 굵직한 자리들을 모두 사양할 수 밖에 없었던 沙磯에게는 그만한 事情이 있었다고 하겠다. 高宗이 그 卽位初에 宗室에 대한 특별 배려로, 그 一門이 모두 不振한 가운데서도 沙磯만이 唯獨 正憲階에까지 올려 놓았지만, 吏曹判書란 자리는 沙磯가 감당하기에는 오히려 높은 벼슬이었을지도 모른다. 極烈 少論이 廟堂의 문턱을 드나들기에는 역시 不安한 出入이 아닐 수 없었으며 더욱이 그 所信이

8) 李勉伯 : 前揭書

나 抱負를 펼 수 있으리만큼 廟堂의 雰圍氣가 好意的이지 못한 것이 事實이다. 寧齋가 玉堂生活 10餘年에 上直을 한 것이 단 한번밖에 없었다 하며[9] 일찍부터 그 同列들과도 相避를 하고 지냈다는 것은 이러한 事情을 설명하기에 充分한 相補的 事實이 될 것이다. 一部 少論中에는 老論의 外廓地帶에서 棲息하면서 家世 代代로 宦路에서 떠난 일이 없지마는 黨論의 被害라고는 단 한번의 귀양살이도 모르고 지내온 집안도 있다. 그러나 寧齋 一門은 그러한 집안과는 嚴格히 區別되어야 할 그들대로의 家憲을 지켜 온 집안이다.

朝鮮王朝時代의 黨論에 대한 著述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지마는, 寧齋가 著述한 黨議通略만큼 體系있게 씌어진 글도 없으며 또 寧齋의 손에서 이 책이 씌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가 黨議通略 序文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이 책은 그의 祖父 沙磯가 手錄한 國朝文獻 百餘卷中에서 특히 黨議에 관계되는 것만 拔萃 整理하여 이를 二卷으로 成篇한 것이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이에 앞서 그의 高祖 椒園이 일찍이 그의 「君子之過說」에서 黨禍의 遠因을 抉摘한 바 있으며 그의 曾祖父 岱淵이 또한 그가 著述한 「愍書」[10]에서 朝鮮朝 黨禍의 深根을 針刺 刀割한 일이 있는 바 이 黨議通略이야말로 傳家의 寶稿가 寧齋의 붓끝을 빌어 세상에 그 빛을 發한 것이라 할 것이다. 黨禍에 밀려 累代에 걸쳐 沈淪을 거듭하면서도 오로지 固窮 그것을 家憲으로 삼아 家學을 지켜온 寧齋 집안에서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自然한 일로 보아질 수도 있을 것이며 後世의 公議에도 좋은 典據와 模範을 보인 결과가 된 것이라 할 것이다.

寧齋가 百餘卷이나 되는 國朝文獻 가운데서 특히 黨議에 관계되는 記事만 골라 뽑아 成册한 것은 그가 그 序文에서 밝힌 바와 같이, 國朝의

9) 李建昌 : 明美堂集 明美堂詩文集叙傳
10) 鄭寅普 : 薝園國學散藁 「愍書」 參照

黨弊가 歷代에 보지 못한 것으로서, 穆陵 乙亥(宣祖8年)로부터 元陵 乙亥(英祖31年)에 이르는 180年 동안 公私間의 文字에 記錄된 것 中에서 10에 7·8이 모두 黨議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 黨議에 관계되는 記事를 따로 추려서 成册을 해두지 않고서는 後世 史家들이 正史를 編纂하는데 있어 그 判斷이 흐려지게 될 憂慮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뼈에 사무친 黨禍의 體驗에서 보아 지저분한 朝鮮王朝의 政治風土의 縮圖가 바로 이 黨論이라고 看破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後世 史家들에게 그 準據를 보이기 위하여 史料의 整理作業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그가 「原論」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11] 古今의 朋黨이란 至大 至久 至難言한 것일 뿐 아니라 더욱이 自身이 黨中의 人物이었기 때문에 記事의 取捨·選擇과 記述의 公正에 무척 苦心한 것이다. 黨論이란 원래 君子의 朋黨에서 出發한 것이지마는 朝鮮王朝時代에서와 같이 士類政治가 오래 繼續됨으로써 그것이 末流에 이르러 모두 黨中의 黨으로 派黨이 되어 彼와 我의 對立으로 그 樣相이 變質된 政治風土下에서는 사실상 是非曲直·正邪 忠逆을 가리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寧齋가 黨議通略의 編述에 그 原稿가 된 國朝文獻을 가리켜 모두 記述한 것이요 하나도 創作한 것이 없다고 강조한 것은 곧 그의 編述態度를 解明키 위한 迂廻的인 변명이라 할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事實의 記述에서 그쳤을 뿐 그의 意見이나 批評 같은 것은 아예 加하려 들지를 않았다. 寧齋를 가리켜 記事에 良手라고 極讚해 온 滄江 金澤榮도 이 黨議通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2]

其所撰黨議通略一書 蕪雜頗多 不似出於其手 此無他以其涉於時諱 心懷畏難 但

11) 李建昌 : 明美堂集 卷11 原論
12) 金澤榮 : 韶護堂集 卷8 雜言

述諸說 不加精裁故也 覽者宜諒之

寧齋의 손에서 나온 글인가 의심할 정도로 다만 諸說을 記述만 하고 精裁를 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讀者로 하여금 그렇게 밖에 쓸 수 없었던 寧齋의 心境을 理解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再從弟 蘭谷은 黨議通略 跋文에서, 寧齋의 허물은 黨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黨을 하지 않은 데 있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辛壬獄事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편을 두둔하고 이편을 깎아내린 것이라 한여 寧齋가 黨人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自派의 立場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였던 것이다.

去年에 出刊된 蘭谷存稿에 보면 蘭谷의 從六世祖인 北谷公(眞儒)의 家傳이 실려 있다. 朝鮮王朝가 亡하고 黨論이 終熄된 지 이미 오래인데도 거어코 辛壬獄事의 顚末을 세상에 펴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다. 辛壬獄事의 黨禍가 이 寧齋一門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 餘孽이 컸던가를 짐작케하는 것이다.

Ⅱ. 寧齋一門과 陽明學

우리나라에 있어 陽明學의 淵源系譜는 처음부터 成立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그 脈絡이 있었다 해도 永遠히 알 수 없는 수수께가 될지 모른다. 陽明을 아는 者는 많았지만 門外에서 陽明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朱子學만이 一方的으로 通行하기 위하여 陽明을 容納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不毛의 風土 위에 陽明學을 家學으로 傳한 집안이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 儒學史 연구에 있어 重要한 事實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寧齋 一門이 바로 그렇다. 寧齋一門에 陽明學의 傳統을 심어준 것은 霞谷 鄭齊斗다. 谿谷 遲川 霞谷의 垂直關係가 밝혀

져 있지 않은 지금에 있어 그 繼起相承한 淵源系譜는 아직 溯考할 길이 없다. 그리고 미리 附言해 두고자 하는 것은 本稿의 作業이 陽明學의 本旨와 같은 것을 그 硏究 對象으로 하는 思想史의 연구작업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다만 陽明學의 傳統이 寧齋一門의 家學으로 傳하게 된 系譜的인 考察에서 그치려는 것이다. 霞谷과 寧齋一門이 그 因緣을 가지게 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다만 筆者의 아는 바로는 寧齋의 5代祖인 匡明(1701~1778)이 霞谷의 孫壻가 된 血緣的인 關係의 成立에서 그 緣故의 실마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匡明은 霞谷의 아들인 府使 厚一의 사위요, 靜觀齋 李端相의 外孫壻다.[13] 그는 江華의 鎭江山 아래로 霞谷을 찾아가 거기서 배운 것이다. 그러나 匡明은 그 遺業이 文字에 傳하는 것이 없어 그가 무엇을 배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陽明을 獨契한 외로운 霞谷이 그에게 陽明의 學을 가르친 것은 쉽게 짐작할 수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의 從弟 圓嶠 匡師(1705~1777)와 從兄 恒齋 匡臣(1700~1744)은 바로 霞谷 앞에 나아가 陽明을 배웠다. 물론 江華로 찾아가 배운 것이다. 霞谷이 江華에 退居한 것이 그의 61歲되는 肅宗36年(1710)이고 前記 匡明이 이미 그 門戶가 盛할 때부터 江華에 드나들은 것을 보면 이들이 霞谷에게 배우기 시작한 것은 모두 20前後의 젊은 나이 였을 때다. 圓嶠가 王學을 霞谷에게 배웠다는 것은 그의 墓誌에 다음과 같은 짧은 記錄이 있을 뿐이다.[14]

公於諸經四書 多不能曲從先儒 尊尊鄭霞谷先生 而先生主王氏 公於王氏 亦未契致良之說

霞谷을 師事하고도 王學을 배우지 않았을리 없지만 다만 時諱를 꺼리어 그렇게 적었을 것이다.

---

13) 李忠翊：前揭書

14) 李匡師：圓嶠集 墓誌(李忠翊撰)

陽明에 心醉하여 本格的으로 陽明을 배운 사람은 恒齋다. 圓嶠는 그가 쓴 祭恒齋從兄文과 五兄恒齋先生行狀에서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15] 그 祭文에서는

始慕晦菴 闡明格致 後聞霞谷新建之說 (中略) 求之數歲 尊崇信慕 終乃生疑 復將王朱二書在ㅠ 一一參互 比較得失 始時黑白棼然 參差如是 累歲血戰不已 終見晦翁純然無庇 王之爲說 過高而捿 (下略)

이라 하여 生疑를 한 일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行狀에 적은 아래의 記錄을 보면 霞谷의 王學이 결코 외로웠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後以事入江都 拜鄭文康先生 文康以大老邃學 世或議其右新建 先生初不欲見 及見精深篤實 歎曰 不見其書未可輕詆 歸取王文成集 讀之曰 非若晦翁之醇然 見道精約 要亦可取 何至斥以異類 爲作擬朱王問答 以辨之

擬朱王問答을 지어 그의 自得한 境地를 펴보이기까지 한 恒齋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匡明의 養嗣子인 椒園과 圓嶠의 季子 信齋 令翊이 있다. 家學으로 陽明을 배우기는 하였지만 信齋는 이에 心醉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謫舍를 찾아 南北塞로 奔走한 信齋는 圓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中의 하나다. 椒園은 그가 쓴 從祖兄信齋先生家傳에서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忠翊 嘗喜王氏致良知之說 先生曰 王之學 浮高染禪 須學晦庵爲正 忠翊 久而後信其然

스스로 儒林·文苑傳에 드는 따위를 우습게 생각하고 俊傑이 되기를 自期한 椒園이 王學에 心醉한 것은 自然한 일이며 後日 晦庵의 學을 믿었다 해도 거기서 知足할 爲人이 아니다. 다만 椒園의 高識으로 王學에

15) 李匡師 : 前揭書 卷九

대한 遺業이 文字에 傳함이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後代에 와서 蘭谷이 陽明을 遂學하였다고 하나 文字에 傳하는 것이 없고 다만 그가 가르친 爲堂 鄭寅普가 비록 그 自得한 境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지마는 近世陽明學의 宗旨를 紹介한 것이 있다. 寧齋一門의 家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가지 事實은 朝鮮朝後期에 擡頭한 實事求是의 新風에 따른 國學의 硏究가 그것이다. 圓嶠는 그가 지은 五音正에서 聲韻의 誤謬를 辨正하였다. 五音正은 傳하지 않고 그 長文의 序가 圓嶠集에 있어 그 一斑을 窺知할 수 있을 뿐이다. 그의 長子 燃藜室은 國故에 該博하여 燃藜室記述을 編纂하였고 圓嶠의 書訣後篇을 代述한 季子 信齋는 그의 「論文章之弊」에서 歷代 文章의 弊端을 辨斥한 卓見을 보였으며 「論曆載陰陽避忌」에서 曆學에 대한 그의 卓論을 보이었다. 三敎에 博通하고 高識至行으로 推重을 받은 椒園은 그의 假說上下에서 假를 攻斥한 一大 論說을 펴보였으며 그의 說文新義序에서는 文字學에 대한 그의 높은 識見을 살필 수 있다. 그는 神仙도 배우고 佛道에도 깊은 理解가 있었다. 題自書坐忘論後 題佛經金銀字帖後와 같은 文字는 모두 그러한 데서 나온 것이다. 豪邁한 선비 岱淵은 그가 著述한 「憨書」에서 當時 社會의 諸積弊를 그 深根에서부터 파해침으로써 文人으로는 相望도 못할 卓論을 편 바 있다.[16] 특히 雄特하면서도 麗率함이 없는 그의 文章은 椒園과 함께 當代의 名章이라 아니할 수 없다. 岱淵遺稿 一卷書가 아직도 寫本으로 있어 널리 읽혀지고 있지 못할 따름이다. 이로 보면 寧齋·耕齋·蘭谷 從兄弟가 一代의 文章으로 이름을 나란히 하였거니와 이는 결코 文章의 집 뜰아래서 文章이 났을 뿐이다.

Ⅲ. 寧齋와 그의 文學

寧齋가 15살 되던 해 高宗3年(1866)에 丙寅洋擾가 있었다. 이때 그의

16) 鄭寅普：薝園國學散稿 P1

祖父 沙磯가 仲弟 士遠과 함께 殉節하였다. 이로 因하여 江華에서 別試를 보이였고 이 道科에서 어린 孫子 建昌에게 及第가 내려진 것이다. 寧齋의 行狀에 의하면 이로부터 그는 古詩文을 익히기 시작하였고 그 文名이 널리 搢紳間에 알려져 四方에서 찾아드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開城의 少年 書生 金澤榮이 寧齋를 찾아온 것도 이두럼의 일이었으며[17] 이 뒤의 일이긴 하지만 全羅道 光陽에서 올라온 시골 선비 黃玹도 그의 시골티를 벗어보려고 寧齋를 찾았던 것이다.[18] 寧齋가 처음으로 出仕한 것이 19歲였다. 起居注에 補任되어 玉堂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朝中最年少의 覇氣를 자랑한 寧齋는 처음부터 大院君의 비위에 거슬리어 大院君이 攝政하고 있는 동안 그는 떨치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때까지도 黨禍의 餘孽이 가시지 않아 일찍부터 그는 당시의 權貴들과의 사이에 심한 嫌郤을 意識하게 되었으며 그로 因하여 그 同列과의 사이에서도 相避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코 그의 宦路가 順坦하게 열린 것은 아니었다. 그의 風貌는 보통사람을 지나지 않았지만 剛直한 性格의 所有者였던 그는 事理를 보는 慧眼이 남다른 바 있어 어떠한 不義와 誘惑도 容納할 줄 모르는 爲人이었다. 仲弟인 耕齋 建昇은 寧齋의 行狀에서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19]

惟公則終始不迷 屹然 獨立於滔溺之中 得全大節 是用何道哉 無利心 故見義明 見事亦明 事變百出 不能惑也 (中略) 公體不踰中人 然眉目疎朗 神采英發 性剛正明白 無矯情 無矜色 與人言 坦率簡易 然嶷然有不可犯之色 心無嗜好 獨好書 (下略)

妥協을 모르는 그의 淸明剛介한 性格은 廷臣들과의 사이에 심각한 摩擦을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그의 立朝大節은 世人의 稱譽를 받았다.

湖南 右道의 按廉使가 되어 忠淸道의 暗行에 나선 寧齋는 當時의 權臣이자 忠淸監司인 趙秉式의 非違를 論覈하였다가 도리어 趙秉式의 逆襲

17) 李建昌 : 明美堂集 卷四 送金于霖遊燕序
18) 李建昌 : 同上書 卷四 送黃雲卿書
19) 李建昇 : 耕齋集 先伯氏參判府君行狀

으로 北邊의 碧潼으로 귀양살이를 가야만 했다. 이때 그의 나이 불과 26살이었다. 御史의 修業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31살에 通政階에 올라 다시 京畿十三邑을 按廉하기에 이르러 賑恤使로서의 任務를 훌륭히 遂行하였다. 33살에 어머니 尹氏夫人의 초상을 맞아 이로부터 鄕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闋服後 2年만에 다시 梁山郡守로 있던 아버지 象學의 喪을 맞아 任地인 梁山으로 奔喪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 二憂를 當하는 사이에 그의 빛나는 文學修業이 江華鄕里에서 이루어졌으며 黨議通略의 大作이 이때에 著述된 것이다. 40세에 다시 나와 漢城少尹이 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北道에 나가 咸興亂民을 按覈하고 돌아와 承旨가 되었다. 그러나 東學亂民의 鎭撫問題에 있어 처음부터 强硬한 立場에 선 그는 끝내 宣撫使 魚允中과의 사이에 異見을 보여 다시 全羅道 寶城으로 流謫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42歲였으며 甲午政變이 있기 한해 前의 일이다. 第一次 金弘集 內閣이 成立되자 그에게 工曹參判의 벼슬이 내려졌으나 그는 應하지 않았다. 甲午政變을 멀리하기 위하여 江華 鄕第로 내려간 寧齋에게 이러한 벼슬자리가 眼中에 있을 리 없다. 綺堂 鄭元夏·紋園 洪承憲 그리고 耕齋와 蘭谷이 한자리에 모여 講論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江華섬에 陽明學 200年의 傳統을 심어준 霞谷의 故風을 잊지 않고 모여든 이들이었다. 新官制가 行해진 뒤에도 寧齋를 아끼는 朝廷의 一部에서는 계속 그에게 法務協辦·經筵侍講 등의 자리를 내려보냈으나 그는 끝내 이를 拒絶하였다. 그가 마흔다섯살 되던 해에, 사실상 그에게는 마지막의 機會가 되었지만, 다시 高宗은 外職을 勸하여 海州觀察使를 除授하였다. 세차례에 걸쳐 嚴命이 내렸지만 세번 다 사양하였다. 마지막으로 觀察使의 榮官과 古群山島 流配를 놓고 兩者中에서 어떤 것을 擇하겠느냐는 嚴旨가 내렸으나 寧齋는 서슴치 않고 古群山島 流配를 自願하였다. 月餘만에 赦還이 되었지만 그는 마치 각이오는 그의 最後를 豫見이

라도 한듯이 자기 손으로 그의 詩文集叙傳을 지어 두고 2年후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상에서 그의 出處의 대강을 살펴보았거니와, 47年의 짧은 生涯中에서 그 殆半을 廟堂에서 보내고서도 官人으로서의 寧齋는 그의 抱負를 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文學을 통하여 그 英采를 드러내었다. 韓國漢文學史에 있어 그 마지막 章을 빛낸 것이다. 滄江·梅泉 그리고 寧齋 自身이 詩弟子로 自處한[20] 古懽堂 姜瑋와 함께 그 이름을 나란히 하였던 것이다. 弱冠에 이미 文名으로 널리 알려진 바 되어, 後日 그와 가장 가까운 文友가 된 滄江과 梅泉도 처음에는 모두 寧齋를 통하여 發蔫이 되었다. 너무 文章으로 이름이 높았기 때문에 詩人으로서의 寧齋는 文名의 그늘에 가려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事例는 唐宋八家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韓愈 歐陽修가 모두 뛰어난 詩人이었지만 詩가 文을 따르지 못하여 詩名이 相對的으로 드날리지 못했을 뿐이다. 흔히들 曾鞏을 가리켜 詩가 없는 것이 恨이라 하지만, 曾鞏에게 있어서도 그 事情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 훌륭한 詩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文名이 너무 盛했을 따름이다.

滄江을 비롯하여 寧齋의 詩를 論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寧齋의 詩에 白居易의 風이 있다고들 한다.[21] 아마 寧齋詩의 脫俗한 面을 들어 그렇게 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寧齋 自身은 宋詩를 배운다고 하였다. 그의 詩「讀蘇黃詩」에서 보여 준 것이 그것이다.[22]

子瞻作俚語 奕奕天仙氣 魯直爲艷句 兀兀枯禪味 (中略) 子瞻尙可慕 魯直大可畏 (下略)

---

20) 姜 瑋：古懽堂集 序文

21) 李建昌：前揭書 序文(金澤榮 作)및 行狀(李建芳 撰)

22) 李建昌：前揭書 卷五 所載「讀蘇黃詩」

이밖에도 東坡詩에 次韻한 詩作이 많은 것으로 보아 寧齋가 東坡詩를 배운 것만은 사실이다. 梅泉이 그러하듯이 寧齋의 詩世界에서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은 역시 陸放翁의 영향이다. 放翁의 詩를 읽지 않은 詩人은 적지마는 放翁을 배웠다고 말하는 詩人도 흔하게 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梅泉과 寧齋에 있어서도 이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다. 寧齋의 詩作中에서 특히 그의 30代作이 주가 된「少休收草」詩篇 속의 作品中에는 만약 그것을 放翁의 詩卷 속에 混有하여 둔다면 어느 것이 寧齋의 作品인지 辨別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이 많다. 그 一例로 寧齋의「夜涼」과 放翁의「題書齋壁」과 같은 詩는 그 眞情에 있어 너무도 相似한 데가 많다. 深齋 曺兢燮이 寧齋와 梅泉의 詩를 比較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大抵 寧文雖若氣短 然其一段光彩炯然處 終未易及 其詩亦自成一家 雖骨力稍若遜於梅泉 而其眞情流出 風格動人處 又恐梅泉做不能到 此則槩於人 而不槩於詩者 要之 二家詩性 大略相似 幾有不可辨者

寧齋와 梅泉은 그 詩性에 있어서는 너무 비슷한 데가 많아 서로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다만 骨力과 風格 같은 것에있어 그 所長이 다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骨力이나 風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天眞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결코 詩의 工拙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兩人 共히 陸放翁의 영향이 깊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寧齋 自身이 그 晩年에 가서 實吐한 것을 보면 錢牧齋를 배운 것이 事實로 드러난다.「題有學集後」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는 것이다.

四十年來苦學詩 何曾夢見杜陵爲 劍南廣博遺山峻 不諱錢翁是本師

杜甫는 감히 엄두도 못내고 陸放翁은 너무 廣博하고 元遺山은 너무 峻險해서 배우기가 어려웠지만, 錢牧齋가 자기의 스승이었다는 것은 숨

길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牧齋를 배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그 苦衷의 一端을 엿볼 수 있다. 明 淸 兩代에 仕宦한 牧齋의 欠이 寧齋에게 거리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詩人에게는 各己 그 所長이 있기 마련이다. 滄江은 古詩에 長하고 梅泉은 絶句에 長하다고 하는 것이 一般的인 評이다. 寧齋에게도 굳이 그 特長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古詩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古詩를 먼저 하는 것이 詩人의 正道임은 물론이다. 滄江·梅泉·寧齋를 오직 그 風格에서만 본다면 滄江과 梅泉이 神韻에 있어 寧齋를 앞선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風格과는 관계 없이 寧齋詩의 特長은 平淡한데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寧齋의 詩世界를 그 時期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대개 3期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20代의 詩修業期와 30代의 本格的인 文學修業期, 그리고 40代의 悲憤凄楚한 詩境이 그것이 될 것이다. 20代를 가리켜 詩修業期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23살에 歲幣使의 書狀官이 되어 赴燕하는 길에 古懽堂과 酬應한 紀行詩에서 이미 그의 詩才를 認定받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당시의 翰林名士 黃鈺, 張家驤, 徐郙 등으로부터 嗟嘆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그의 詩의 進境이 얼마나 速成하였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寧齋詩에 있어서 添言해 둘 것은 그의 탁월한 諷刺의 手法이다. 火山民의 生態를 그린 「峽村記事」를 비롯하여 媿屈한 서울 兩班들을 諷弄한 「老烏」 등의 古詩와 「鹿言」과 같은 奇文에서 보여준 人生批評 같은 것은 寧齋의 文學世界에 있어 諷刺文學의 새로운 素地를 提示한 중요한 事實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寧齋의 詩世界를 疎略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文章家 寧齋의 面貌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寧齋는 우리 文學史上 漢文學의 傳統이 그 終焉을 告하는 19세기 後半의 激動期에 巍然히 나타나 우리 漢詩文學의 終章을 빛낸 文章家이다. 그는 특히 古文에 뛰어난 솜씨를 보여 우리 文學史에 있어 드물게 보는

古文의 名手가 된 것이다.

滄江 金澤榮이 抄選한 麗韓文選 序文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

氣也者 不可以人力强爲之

이는 平素 古文을 좋아하는 滄江 자신이 특히 氣가 勝한 文章을 取擇한 選文의 基準의 一端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이 文選의 選에 든 九家는 모두 古文의 良手들이며 이 文選에 抄錄된 文은 古文中에서도 특히 氣勝한 文章이 많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九家中에서 金富軾과 李益齋는 모두 古文을 崇尙하던 以前時代의 人物이어서 그들의 文이 完全한 古文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들이 古文을 倡導한 初創期의 開拓者이며 특히 記事文에 名手라는 點에서 그들의 文이 文選에 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古文이라 하는 것은 물론 唐宋八家를 倣模한 文體를 말하는 것이며 (或者는 이를 新古文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流風은 末世에 와서는 심지어 難句 僻字를 羅列하여 文理가 통하지 않는 글까지도 古文이라 하는 弊端을 빚는데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寧齋의 文學을 아는 가장 가까운 文友는 역시 滄江과 梅泉이다. 이들 兩人은 똑같이 寧齋를 가장 가까운 文友로 自處하고 있다. 梅泉은

生平文字之交 以寧齋滄江二公爲最 而於寧齋傾向尤深 晨語歲嘗數十 至晚年稍減矣[23]

이라 하였고 滄江은

余交遊之中 能知餘生平本末 及與共文字甘苦之境者 惟寧齋爲然故…[24]

---

23) 黃 玹 : 梅泉集 事行零錄

24) 金澤榮 : 韶護堂集 卷八 雜言

라 하여 서로 그 知己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梅泉은 寧齋의 文學을 論한 文字가 없으므로 寧齋의 文學을 理解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或者는 滄江이 일찍이 寧齋에 의하여 發薦이 된 感恩 때문에 寧齋의 文學에 대한 滄江의 論評은 그것이 適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妄膚으로 滄江의 文學을 云謂하는 따위의 輕擧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寧齋는 滄江이 指摘한 바와 같이 八家中에서도 王曾과 歐陽子의 사이를 往來하였으며[25] 그는 특히 記事에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26] 이에 대하여 滄江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7]

李寧齋 記事之文 氣骨雖不及朴燕岩 洪淵泉 然亦一近世之良手也

그러나 嚴栖는 寧齋의 記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8]

寧齋之文 尤與前日所見不同 修堂麗澤二記 辭理俱短 兼見銘 理掩於辭 不足爲法

辭와 論理가 모두 短하고 論理가 辭에 가리어 法度에 맞지 않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이에 앞서 滄江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인 자기의 短見을 변명한 것이다. 그는 또 그뒤에 滄江에게 보낸 편지에서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嚴密한 비평을 加하고 있다.

寧齋 固是一代眞才 而其薄處 終不可謂 人生天地間 是十九首嫩語 何至挿入於記事(見修堂記) 天下後世吾不敢知 一似孩童口氣 豈宜加之於銘人(見李杏西墓誌) 見山堂記 無一字不似半山 而摹擬之過 天眞已喪

十九首 속에 있는 「人生天地間」과 또 「天下後世吾不敢知」와 같은 文字는 記文에 當치도 않거니와 見山堂記에 있어서는 一字一句 모두 王半山

25) 李建昌 : 前揭書 序文 및 行狀
26) 金澤榮 : 前揭書
27) 金澤榮 : 前揭書
28) 曺兢燮 : 嚴栖集 卷八 與金滄江

을 模倣한 것이어서 그 天眞을 잃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耕齋가 그의 兄을 변명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29]

嘗記寧齋爲晋州人作南冥年譜 及曹老愚墓銘 而其弟耕齋 謂其人 曰吾兄自以序太留心 故不佳 不若銘之以無意出之爲得意 然則 文之工不工 亦有非己之所能爲者 其然其不然乎

일부러 애써지은 南冥年譜序는 잘되지 않고 오히려 생각지 않고 지은 曹老愚銘은 得意作이 되었으니 글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先母淑人坡平尹氏行略이나 姜古懽墓誌銘과 같은 것은 모두 上乘에 속하는 글이며 특히 寧齋의 所長處인 序卷 所載 送朴梧西行臺之燕序나 送呂司諫赴謫序와 같은 得意作을 보면 앞서 있었던 아쉬움은 一時에 霧散되고 말 것이다.

深齋는 누구보다도 寧齋의 高明을 稱道해 왔으며 특히 記事에 있어서는 當代의 第一人으로 推重한 것이다. 아래에 적은 글이 바로 그것을 보인 것이다.[30]

李朝淮文苑傳 不容假托 至如道學儒林 不勝其僞冒 即使一代眞才如寧齋者 處之未知其何所決也 寧齋有論蓋沙集一書 眼目極高而云云

深齋는 계속하여 같은 글에서

由此觀之 使寧齋修一代之史 亦未必其推度之毫忽不差也

寧齋와 같은 一世의 眞才에게 修史를 맡긴다면 그래도 제일 낫지 않겠느냐는 그 期待의 一端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寧齋는 論議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도 滄江과 巖栖는 모두 讚辭를 보내고 있다. 滄江은 그의 雜言에서[31]

29) 曹兢燮 : 前揭書
30) 同上
31) 金澤榮 : 前揭書

李寧齋 原論 論己亥禮說 論啓運宮禮說三篇 在吾邦爲百世之大議論 而文亦稱之 其中 啓運論 尤鑱削精妙 可與王半山 并驅耳

라 하여 論議만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 文章도 王半山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다. 嚴栖는 특히 寧齋의 論議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32]

寧齋之學識 本不及農巖 而其操執議論 誠有過之者 文章則終有如前日所論 治衰之異 要其精妙處 可與望溪惜抱 相上下 而非今人之所及

이라 한 것이라든지 또[33]

兢於寧齋文 見之不多 然始原論 及與諸弟 論蘆沙集書 每讀之 不覺寢食爲廢 蓋其眼目之高 思解之徹 不但近代所未見

이라 한 것은 非但 近代에서만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古代에서도 보지 못하였다고 한 것이므로 이 이상의 칭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寧齋의 文에 대한 一般的인 評에 따르면 寧齋는 그 至精至雅한데서 理法이 갖추어졌으나 氣弱한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滄江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34]

朴燕岩承農岩之雅 而昌大雄變之 自後 洪淵泉以下 去益愈淸 而元氣亦隨 而稍薄

嚴栖는 이에 대하여 到處에서 그의 見解를 披歷하고 있다.[35]

執事於吾東近日作者 文與寧齋 詩推梅泉 自擬以季孟之間 然忘謂執事之文 辭理微遜於寧齋 而氣則勝之

또 다른 곳에서[36]

---

32) 曹兢燮：前揭書
33) 同上
34) 金澤榮：前揭書
35) 曹兢燮：前揭書
36) 曹兢燮：前揭書 答金滄江

大抵 寧文雖若氣短 然其一段光彩炯然處 終未易及 其詩亦自成一家云云

巖栖는 이에 앞서 滄江에게 보낸 長文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氣를 주장하는 그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37]

寧齋之文 只得如執事所論 然朱子論文以治世亂世衰世爲等 治世之文典雅 亂世之文雄奇 衰世則薄劣而已 今以是說 而求之 八家則韓文以治世之雅兼亂世之雄 歐曾以雅勝 蘇氏以雄勝 柳有亂世之音 王有治世之音 而皆帶衰世之氣 若執事所撰我朝七家 則谿澤農淵 有雅氣 燕岩有雄氣 而臺山寧齋 皆以雅音 俱不免衰氣 (臺病於切刻 寧病於輕弱) 此則似其人品性情之使然 不專由於學力也

흔히 文章의 高下를 점치는 基準으로 氣와 理法을 든다. 이런 경우, 理法은 배우면 되는 것이지만 氣는 人力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理法은 文章의 法度이므로 氣와 理法은 원래 同日에 論할 수 있는 比較의 對象으로서의 範疇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氣를 主張하는 立場에서는 사람은 대개 寧齋의 文章을 가리켜 氣가 短하긴 하지만 精雅한데가 있다고 한다. 뛰어난 論議의 재주를 兼하고 있는 그의 雅氣는 記事의 良手로서 遜色이 없다 할 것이다.

甲午政變을 끝내 容納하지 않고 東學의 蜂起를 한갖 民亂으로 다스릴 것을 主張한 寧齋는 그러나 결코 그 時代의 頑固한 樸學의 무리와는 區別되는 自己世界를 가지고 있었다. 傳統的인 朱子學體系에 反撥하여 陰陽五行說을 辨斥하였고 太極說에 있어서도 깊은 懷疑를 보였다.[38] 화려한 宮室은 있어도 利用厚養의 道具가 絶無한 것을 慨嘆한 그는 使行의 任務가 그 어느때보다도 重한 것을 看破한 것이다.[39] 淸國事情에 누구보다도 밝은 그였기 때문에 李鴻章을 큰 거간꾼으로 보았던 것이다.[40]

---

37) 曹兢燮 : 前揭書 與金滄江

38) 李建昌 : 前揭書 讀易隨記所載 易說僭疑參照

39) 李建昌 : 前揭書 送朴梧西行臺之燕序

40) 李建昌 : 前揭書 明美堂詩文集叙傳

外國政情에 생소하면서 성급히 開國을 서두르는 輕擧를 지극히 위험한 불작난으로 본 것이다. 위혁적으로 接近해오는 倭洋夷의 正體에 危懼意識이 앞었기 때문이다.

結　　言

疎略하나마 寧齋를 낳은 寧齋一門의 系譜的인 追跡을 통하여 近世에 보기드문 寧齋一門의 家學을 보았다. 陽明學200年의 眞跡을 더듬어 보았고 훌륭한 文學을 보았으며 時代意識에 앞장서 간 近代意識의 先驅를 보았다. 辛壬獄事의 餘孽로 거의 破家의 苦境을 헤메이면서도 家憲으로 지켜온 困窮 그것을 통하여 祖孫 相傳의 大節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朝鮮王朝의 傳統社會가 마지막에 이르는 時期에 處하여 寧齋 耕齋 蘭谷 從兄弟가 나란히 그 文名을 세상에 드날리게 된 것은 우리 漢文學史의 終章을 장식하는데 있어 한 큰 山脈으로 記錄될 것이다.